

< 앞면에서 계속 >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평가 과소평가 모두 위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입력한 논리를 바탕으로 수집된 학습데이터 내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매우 빠르게 분석하여 가장 낮다고 계산된 결과 값을 찾아낼 뿐이다. 그런데도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라고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기계가 어찌 사람보다 나올 수 있느냐고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평가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인간지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

불과 100년 여간에 인간은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고 제4의 혁명 소프트웨어혁명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같은 진화의 선상에 존재한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특별한 피조물임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보면서 놀랄 때마다 인간지능을 만드신 창조주를 높이고 더욱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런 때일수록 신앙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욕심과 이득만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낸 인간지능이 승리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지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 글쓴 이 / 김 광 교수(한국창조과학회, 한양대학교)

< 문서선교헌금 2016년 5월 >

윤해규(새벽이슬교회) 김삼도(기주평강교회) 이삼선(세계사랑선교회) 김상정(얼바인한인교회)
송희영

www.thetruthlighthouse.org



개혁신앙 < 43호 >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발행처 월간 개혁신앙 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개혁신앙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43

Mayflower 162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청교도 가정의 가정을 위한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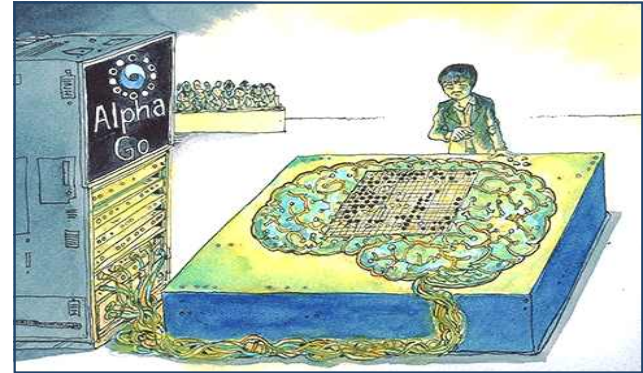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읽기를 중시하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행할 것이며, 그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권하고 명하며, 그들 앞에 거룩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3) 목사가 목회하던 보스턴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가정을 위한 서약 내용

표지설명 / Mayflower was the cargo ship that transported the English separatists or pilgrims, from a site near the Mayflower Steps in Plymouth, England, to Plymouth, Massachusetts, in 1620. an estimated length of 90 to 110 feet and a beam (width) of approximately 25 feet.

창조의 신비(22) 인공지능의 승리인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큰 화제를 몰고 왔다. 그 후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대와 우려의 전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알파고의 4:1 완승으로 사람과 기계(컴퓨터)와의 대결에서 기계가 이겼다고 보고 사람을 지배하는 영화 속 모습이 조만간에 실현될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 시스템은 인공지능망을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수를 두느냐에 따라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를 찾아내 바둑을 두게 된다. 이 때 사용했던 기술은 딥러닝(deep-learning)이다. 컴퓨터를 이용 어마어마하게 저장된 데이터들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세돌과의 대결 전에 프로 바둑기사들의 실제 대국기보를 3천만 건 이상 입력해서 알파고에게 엄청난 경우의 수를 학습데이터로 입력시켰는데 인간으로 치면 1,000년에 달하는 바둑공부를 시킨 셈이라고 알려졌다. 이런 컴퓨터와 맞서 이세돌이 1승을 했다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사람의 신경체계를 모방한 것이 인공지능망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분야는 매우 많다. 바둑 같은 게임에서부터, 의료서비스, 일기예보, 쇼핑, 여행일정, 전쟁계획에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전망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 뒷면에 계속 >